

# 크리스토퍼 드레서 금속공예에 있어서 산업디자인개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industrial design in metal craft of Christopher Dresser

임선희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Yim, Sunhi

Dept. of Arts and Crafts, Konkuk Univ.

· keywords : avant-garde design, art and craft,

## 1. 머릿글

크리스토퍼 드레서(1835-1904)는 영국의 공예운동이 있어나고 있을 때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파악하고 스튜디오를 운영한 디자이너이며 식물학자이다. 드레서는 엄청난 양의 벽지, 섬유, 도자기, 금속, 유리, 가구 등 디자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였고, 특히 그의 금속제품은 시대를 앞서가는 전위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철저한 조형개념이 있기에 최근에 이태리 알레시 회사에서 그의 작품을 재생산하고 있다. 드레서는 윌리엄 모리스의 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s)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나 그의 전개 방향은 모리스와는 다른 시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드레서는 그 당시 영국의 유명한 제조회사로부터 주문을 통해 디자인을 하며, 디자인된 것들은 거의 손의 확장된 범주인 기계를 사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드레서의 태도는 공예운동의 거대한 흐름에서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공예운동이후의 공예가 열려진 개념으로써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예영역에서 드레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드레서는 '공예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공예가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1870대에서 1880년까지 차주전자와 빵 선반을 중심으로 그의 금속 공예와 디자인세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도판 참조)

## 2. 본 글

### 2-1 시대적 상황

영국은 산업사회와 일반대중의 성장에 따른 물품 제조와 예술간의 갈등을 통해 디자인의 전개와 그 가운데 공예운동이 일어나며 디자인 학교, 미술관 설립 그리고 런던 국제 박람회를 진행시킨 나라로써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만큼 그에 따른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 속에서 공예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 사회적 현상이 대량생산이라는 체제를 맞이함에 따라 디자인개념을 내세우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엇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술적 물품의 제조를 어떻게 장식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였고 또한 영국가정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의식으로 디자인개혁을 수반하게 된다.

### 2-2 드레서의 조형철학

드레서도 역시 영국사회와 가정에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물품제조에 대해 사회적 의식을 철저히 갖고 있다. 그는 보다 더 현실적이며 많은 사람들을 향하는 대량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예술과 산업에서 야기되는 긴장을 드레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제품을 생산하였다. 드레서는 창작자와 그것을 제작하는 제작자들 사이에 지위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만든 자의 상표 위에 자기의 사인을 새겨 넣은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여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 그 당시 디자인 교육을 체계있게 배운 학생이며 졸업 후 모교에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디자이너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첫 번째 산업디자이너인 셈이다. 드레서는 예술보다는 과학으로부터 디자인접근을 시작하여 특히 식물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식물의 단순한 형태가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진정한 삶의 모토는 '진리, 미 그리고 힘'이었다. 그래서 과학과 진리는 같으며 예술은 미를 집약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영국 빅토리아시대에 너무 회화적이고 걸치레 적인 장식식으로 역사주의와 고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절충주의적인 장식해석에서 과감히 벗어나려는 예술가의 조형철학이다. 드레서는 그 시대에 맞는 장식을 주장하고 장식의 양식화와 추상화로 향해간다. 장식이란 형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서 장식을 과감히 배제한다. 또한 그는 철저한 기능주의자로서 기능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였기에 기능미, 재료미, 형태미를 함축하고 있는 조형미를 철저히 탐구하였다. 그러한 조형미는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고, 그것이 장식의 힘을 가져다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3 드레서의 금속공예

드레서의 1865년경에 초기 금속제품은 새로움으로

역사주의와 자연주의에 도전하며, 1870년대와 80년대의 차주전자는 일본주전자의 영향을 받아 엄격할 정도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지닌다. 굽, 뚜껑, 주둥이 그리고 손잡이 등은 기본 형태에서의 부수적인 요소들 스스로가 장식의 요소로서 간결하고 새로운 양식을 창출한다. 장식에 길들여져 있는 영국의 예술풍토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드레서만의 금속제품의 전형이 형성된다. 그의 공예는 간결하고 단순하며 디자인 그 자체의 당당함이 보인다. 구운 빵을 놓는 선반은 직선과 곡선, 즉 선만으로 다양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대중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것으로는 비싸지 않은 재료를 선택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로 은도금 처리된 금속공예를 생산한다. 금속공예에서 보여지는 그의 태도는 아름다움이란 것은 원하는 것도 결점도 없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다시 말해 예술이 힘의 표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단순성과 기능으로 드레서의 금속은 구조적 솔직함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 2-4 드레서의 산업디자인 개념

산업사회는 공방에서 공장으로 직인이 공장에서의 노동자로 그리고 공예마스터들은 공장의 사장으로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예의 다변화가 기대되기도 하나 공예의 전통적 본질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공예운동으로 영국의 미학운동과 더불어 공예의 위상을 정립하기도 한다. 이로써 르네상스이후에 하락되었던 공예는 새로운 모습으로 예술

로서의 공예로 회화나 조각 그리고 건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회적 지위와 공예의 예술성이 의미를 갖는다. 이런 가운데 수공예 만을 고집하고 추종하는 가운데 산업공예의 가능성과 의미를 찾으려하지 않았다. 이에 드레서는 예술과 산업 예술과 과학 그리고 기계를 인정하는 디자인 개념을 예술적 제품 모

든 영역에 도입한다. 드레서는 대중을 위한 사회성과 경제성 그리고 철저한 기능성과 효용성을 통한 드레서의 산업디자인을 실행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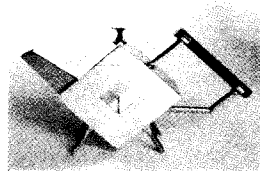
### 3. 맺음 글

드레서는 그 시대의 예술과 산업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시대의 제작은 중세의 공예인과도 같다는 생각을 가지며 재료, 기술 그리고 양식의 문제를 앞서가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과 과학적 진보는 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양식을 요구하므로 드레서는 기능의 중요성과 단순성 그리고 기계적 기술을 주요시 하였다. 모리스가 중세에서 노스탤지어를 찾는다면 드레서는 그 시대의 발견을 통해 기계정신과 외국

문화와 예술 속에서 특히 일본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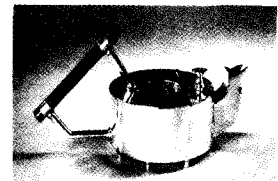
드레서의 금속제품은 과감히 장식을 버린 순수한 조형 형태는 대량생산을 이미 해결하였고, 20세기 장식 부재론을 수행하고 있는 배경을 갖는다.

드레서는 산업디자이너의 선구자로서 공예의 갈 길을 모리스와는 다르게 열어놓음으로써 공예의 모든 영역을 확장시킨 현대 공예가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공예는 오늘날의 조형예술의 구조 안에서 순수미술과 디자인과 함께 존재한다. 그러기에 디자인을 향하거나 순수미술을 향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열린 개념으로서의 공예이기 때문이다. 물론 드레서는 그의 디자인 철학과 실천은 공방에서 공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공예의 또 다른 상황을 과감히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드레서가 산업디자이너역할이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드레서는 공예의 산업성을 더욱 더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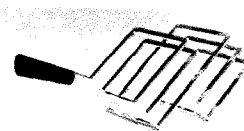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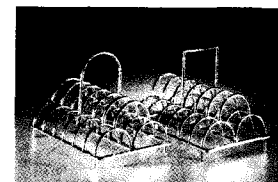
Christopher Dresser, Principles of decorative design, London, 1873  
Christopher Dresser, Japan, its architecture, art and manufactures, London, 1882



1877년, 은도금 차주전자



1880년, 은도금 빵선반



1881년, 은도금 빵선반

Stuart Durant, Dresser, Academy editions, New York, 1993  
Widar Halen, Dresser, Phaidon, London, 1993

Isabelle Anscombe, Knowledge is power, Connoisseur, 1979

Elizabeth Wendy Cumming Kaplan, The arts and crafts movement, Thames and Hudson, London 1989

Nicolaus Pevsner, The sourc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49

George H Marcus, Functionalist design, Prestel, New York, 1990

Alberto Alessi, L'usine a rêves, Konemann, Köln, 1998